

지역 소식통

고창군, 재난의료 대응체계 신속대응반 교육 실시

고창군이 지난 14일 보건소 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신속대응반 재난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수사상자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의료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원광대학교병원)에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다수사상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의료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으로 구성했으며, 신속대응반은 다수사상자 10인 이상이 발생하는 재난 시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는 현장 활동에 나서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숲가꾸기 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한 2023년도 산림자원분야 숲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14개 시·군의 숲가꾸기 사업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하고 사업 품질 향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마련했다. 시는 경쟁 수목과 덩굴류 제거의 적정성, 조림목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시는 숲가꾸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읍산림조합과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현장 점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했다. 그 결과 780ha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큰나무 가꾸기 90ha 등 총985ha를 시행했다.

'조림지가꾸기'는 조림 후 3년간 생장을 저해하는 덩굴 제거,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15년 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등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록

부안군, 다랭이연못·자연마당·신운천 등 33만 4536㎡ 규모 생태정원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 해뜰마루 정원'은 지난 13일 전라북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다.

부안군으로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된 지방정원이다.

부안 해뜰마루 정원은 부안 터미널과 인접하고, 부안읍 시내권과 연결되어, 교통 및 접근성이 좋으며, 신운천 생태하천과 부안 자연마당을 포함하여, 생태 네트워크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현재 33만4,536㎡의 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매일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인 공간이다.

부안 해뜰마루 정원은 6개의 테마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테마별로 살펴보면 수생식물을 특색으로 하는 연못정원과 부안읍 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한 저류지를 이용한 물터정원, 또한 생태친화적 자연마당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부안 해뜰마루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농구, 풋살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체육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특히 신운천을 따라 걷는 산책로는 부안읍에서 부안IC 방향으로 2.1km의 나무송 산책로로 나무송 만의 특색있는 멋진 정취를 자아내는 명소로 많은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운천 산책로를 따라 꽃잔디와 송엽국을 식재하여 내년 3월부터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한 다채로운 운영방안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15일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

심덕섭 고창군수, "행복하고 활력넘치는 농업·농촌만들 것"

심덕섭 고창군수가 15일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을 수상했다.

농업발전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주관하며 지난 6월부터 농업지역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대책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제시, 드론방제단 운영 등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지역 농업의 어려움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 미래 농업을 위한 차세대 사업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된 판정리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고창군 농촌협약으로 향후 5년간 총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고창군농업인회관 건립'은 물론, 농업 보조사업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등이 신속하게 결정·시행되면서 지역농정에 대한 심 군수의 애정과 관심이 돋보이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농업이 바로 우리 역사와 함께 온 생명산업이자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갈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산분야 겨울철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

내년 2월 말까지 축산재해 대책상황실 운영... 시설·사육밀도 등 점검

정읍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한파·집중호우·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예방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철 폭설로 인한 많은 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겨울 겨울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지난해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와 축사시설 사전 점검, 가축 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축 사양 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 요령 △축사 화재 예방 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재해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축산 시설과 농가 경영실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억4200만 원을 투입해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대설, 한파 등 재해대응 시기별로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올겨울 겨울철 철저한 사전 대비와 내실 있는 재해대책 추진으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 요령 등을 숙지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경신 의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및 의회 독립성 강화" 주장

고창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5일 제 302회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

므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신 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금연사업 금연환경조성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연 환경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금연환경 조성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확산해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상식을 마련했다.

시는 △초등학교 금연 포스터 공모전 △금연주간 홍보 캠페인 운영 △그



림자 조명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청소년 대상 금연 골든벨 금연 뮤지컬 운영 △찾아가는 통합건강 캠프 운영 △금연지도원 인력확충과 금연이파트 지정 등 지역사회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